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77 호 [루게 제 24855 호] 주체 104 (2015)년 3월 18일 (수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황병서 동지, 서홍찬 동지와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
였다.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
장은 물고기잡이와 바다가
양식에 절실히 필요한 각
종 어구를 생산하는 현대
적이며 종합적인 생산기지
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는 수산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그 손에 갖추어야
수산업을 발전시키고 군인
들과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어구종합공장건설을 직접 발기
하시고 그 과업을 인민군대에 주시
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
관철을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의 일군들과
건설자들, 련관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들은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침으
로써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주신 영예로
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생산건물과 생활건물, 차고, 휴식장
등으로 이루어져있는 조선인민군 어구
종합공장이 일떠섬으로써 여러가지



덤장, 호망, 자망을 비롯한
어구들도 생산하여 보내주어
야 한다고 하시였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부
단히 개선하는것이 중요하
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자
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울뿐
아니라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
을 높이며 제품검사체계를
바로세우는것을 비롯하여 기
업관리, 경영관리를 짜고들
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는 수산부문에서 요구하
는 어구자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자면 조선인민
군 어구종합공장의 생산능
력을 결정적으로 확장하여
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는 설비를 더 보장하고 생산
면적을 늘이며 생산과 경영활동의 통
합생산체계를 구축하는것을 비롯하여
공장의 현대화를 더욱 훌륭히 실현하
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의 전체 종
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공장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다함없는 고마
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최고사령관 동지
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황금해력사창조에 적극 이바지해갈
충정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어구들을 생산하여 수산부문에 보내
줄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수산물생산을 늘이자면 이런 공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건설을 발기
하였는데 인민군대에서 소문없이 나
라의 귀중한 재부를 또 하나 창조하
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어구종
합공장의 형성안을 보면서 주체적전측
미학사상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건축물들을 일떠세우라고 지시하였는
데 당의 의도에 맞게 공장을 깨끗하고
아담하면서도 문화성있게 잘 지었

다고, 어구생산기지라는것이 알리게
정문과 울타리시공도 특색있게 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경도
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경영
활동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
서 생산하고있는 그물과 바줄, 양식페
들은 물고기잡이와 바다가양식의 기본
생산수단이라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은 수산전선의 병기창과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에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군대와
사회의 수산부문 어디서나 요구하는
그물과 바줄, 양식페를 비롯한 여러가
지 어구들을 많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군수공장
로동계급들이 싸우는 전선에 더 많은
총포탄을 보내주자는 구호를 들고
투쟁한것처럼 공장종업원들도 수산전
선에 더 많은 어구자재를 보내주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공장에서는 전문수산사업소용어구자
재들뿐아니라 섬과 해안선에 주둔하
고있는 구부대들의 수산부업에 필요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김정은동지

나는 당신께서 월남공산당장관 85부(1930년 2월 3일-2015년 2월 3일)에 즈음하여 훌륭한 축하와 친선의 정이 담긴 축전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호志明주석과 김일성주석께서 마련하고 가꾸어주신 월남공산당과 조선로동당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쌍방의 노력으로 계속 힘있게 발전하고 월남과 조선사이의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과 사회주의건설위업 그리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위하여 더욱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촉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며 많은 중책수행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웬 후 쯤

2015년 3월 9일

하노이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가 12일 로씨야 정일봉명칭 올리야누스크주 로조친선협회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로씨야 정일봉명칭 올리야누스크주 로조친선협회 위원장 알렉산드르 크루글리코브가, 부위원장으로는 로씨야연방공산당 올리야누스크주위원회 비서 아. 웨. 푸닌이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3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태양절경 축스가준비위원회가 11일 와르샤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블스카

조친선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스와 보이 야누야의 구즈스키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에 대한 토론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2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평화적 타락 및 정권을 위한 연습을 조직 지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동지께서는 서남전선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4군단관파 포병부대, 구분대들의 심화력타격 및 정령을 위한 연습을 조직지도하셨다. 이어께서는 훈련에서 형식주의를 뿌리뽑으며 훈련을 실천에 제대로 가까운 정황속에서 진행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이어께서는 연습을 보다 강도높이 진행하여 조선인민군 부대들이 일단 적들이 덤벼들면 늘들을 무사발만들고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데 대해 강조하셨다.

이란의 파르스통신, 신문 《이란 데일리》, 프레스TV방송, 인디아의 신문들인 《인디안 익스프레스》, 《힌두》, 지 뉴스TV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도쿄신보》, NHK방송, 미국의 AP통신, 레바논신문들인 《알 추푸리아》, 《알 디아르》, 예지트의 웹사이트 《아흐람 온라인》, 사다 엘 발라드TV방송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스푸트니크방송, 인터

네트통신들인 로스발트, 프레스본 소식을 2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평화적 타락 및 정권을 위한 연습을 조직 지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동지께서는 서남전선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4군단관파 포병부대, 구분대들의 심화력타격 및 정령을 위한 연습을 조직지도하셨다. 이어께서는 훈련에서 형식주의를 뿌리뽑으며 훈련을 실천에 제대로 가까운 정황속에서 진행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이어께서는 연습을 보다 강도높이 진행하여 조선인민군 부대들이 일단 적들이 덤벼들면 늘들을 무사발만들고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데 대해 강조하셨다.

이란의 파르스통신, 신문 《이란 데일리》, 프레스TV방송, 인디아의 신문들인 《인디안 익스프레스》, 《힌두》, 지 뉴스TV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도쿄신보》, NHK방송, 미국의 AP통신, 레바논신문들인 《알 추푸리아》, 《알 디아르》, 예지트의 웹사이트 《아흐람 온라인》, 사다 엘 발라드TV방송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스푸트니크방송, 인터

네트통신들인 로스발트, 프레스본 소식을 2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평화적 타락 및 정권을 위한 연습을 조직 지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동지께서는 서남전선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4군단관파 포병부대, 구분대들의 심화력타격 및 정령을 위한 연습을 조직지도하셨다. 이어께서는 훈련에서 형식주의를 뿌리뽑으며 훈련을 실천에 제대로 가까운 정황속에서 진행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이어께서는 연습을 보다 강도높이 진행하여 조선인민군 부대들이 일단 적들이 덤벼들면 늘들을 무사발만들고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데 대해 강조하셨다.

이란의 파르스통신, 신문 《이란 데일리》, 프레스TV방송, 인디아의 신문들인 《인디안 익스프레스》, 《힌두》, 지 뉴스TV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도쿄신보》, NHK방송, 미국의 AP통신, 레바논신문들인 《알 추푸리아》, 《알 디아르》, 예지트의 웹사이트 《아흐람 온라인》, 사다 엘 발라드TV방송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스푸트니크방송, 인터

네트통신들인 로스발트, 프레스본 소식을 2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평화적 타락 및 정권을 위한 연습을 조직 지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동지께서는 서남전선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4군단관파 포병부대, 구분대들의 심화력타격 및 정령을 위한 연습을 조직지도하셨다. 이어께서는 훈련에서 형식주의를 뿌리뽑으며 훈련을 실천에 제대로 가까운 정황속에서 진행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이어께서는 연습을 보다 강도높이 진행하여 조선인민군 부대들이 일단 적들이 덤벼들면 늘들을 무사발만들고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데 대해 강조하셨다.

이어께서는 연습을 보다 강도높이 진행하여 조선인민군 부대들이 일단 적들이 덤벼들면 늘들을 무사발만들고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데 대해 강조하셨다.

이어께서는 연습을 보다 강도높이 진행하여 조선인민군 부대들이 일단 적들이 덤벼들면 늘들을 무사발만들고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데 대해 강조하셨다.

로씨야의 데레-로스통신, 라오스통신, 캄보디아신문 《콕 쏘네페엵》, 네 팔신문 《머저드르》, 도이원란트판제언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도소식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신도방어중대를 시찰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자

온 나라에 유훈관철전의 불길을 지펴주시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결사 관철하여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은 시간이 흐를수록 천만의 심장을 더욱 격동시키고있다. 어느 공장, 기업소, 단위에 가보아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친솔위원의 비범한 사상리론적외지와 심오한 철학적진리성이 빛날치고 당과 혁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과 역사적사명감이 높여져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비상한 열정이 일초초르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과 더불어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피와 살로, 삶과 투쟁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어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정일동지의 유훈이야말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길을 밝혀주는 우리 혁명의 고귀한 교과서이며 가장 과학적이고 백과전서적인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여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자.

이것이 오늘 산악같이 일떠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불러서 신장되고 받드는 우리 인민의 영원한 신념이고 의지이고 그 세찬 역대로 뚫어번지고있는것이 내 조국의 빛나는 현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거룩한 혁명적사가 변함없이 흐르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얼마나 위대한 도덕의리의 나날이 이 땅에 성스럽게 흘렀던가.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속에 흘러온 지난 3년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험한 투쟁을 벌려온 총정의 행로였으며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의 거대한 전진력과 생명력을 만천하에 파시한 승리와 변혁의 로정이었다.

사람들은 지금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처럼 처음으로 들었던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장을 잊지 못한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가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제에 걸맞고 있고 중국적소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시었다. 나는 성스러운 선군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동지들과 생사명명을 함께 하는 전우가 될것이며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책임을 다할것입니다!

김정일동지의 유훈, 그것은 선군의 기치높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이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별다른 아들로 탄생하시어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 숭고한 덕망으로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을 백두에서 이끄는 조국과 민족, 시대와 혁명에 영구불멸한 업적을 쌓아 올리시었다.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혁명가, 자애로운 어버이의 거룩한 헌신의 자욱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오라.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이 땅 어디에서 사람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이 뜨겁게 흐르고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방편에 그대도 장군님의 혁명사적지도와 같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는것이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우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이룩해놓으신 그 모든 것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고 그이의 유훈을 끝까지 실현하는것,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같은 신념이고 우리 당의 총적투쟁목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3돐을 맞이하던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가며 장군님의 유훈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합니다. ... 혁명의 요구와 력사의 의지가 담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안으려 온 나라 전체 인민은 그이께서 계시기에 어버이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바쳐 쌓아올리신 위대한 공적이 력사와 더불어 불멸할것이며 장군님의 유훈은 빛나게 실현될것이라는 확신에 넘쳐있었다.

우리 인민모두가 운명도 미해도 다 맡기고 사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이렇듯 언제나 어버이장군님을 생각하시며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시어 위하여 불면불휴의 사색과 로고를 다 바치고계신다. 하기에 이어께서는 한결한결의 로작들마다에도 장군님의 혁명사상이 짙 차넘치도록 하시었고 어느 단위를 찾으신든 어떻게 하면 장군님의 유훈을 더욱 찬란히 꽃피울수 있게 하겠는가 먼저 생각하시였으며 인민들속에 계시어도 어버이장군님의 사상의 온기가 그대로 따뜻이 스며들도록 하시기 위해 그처럼 마음을 기울이고계시는것이다.

온 나라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의 불길을 지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얼마나 가슴뜨거운 화폭들이 이 땅 위에 펼쳐지게 되었던가. 피눈물의 그 나날 누구보다도 상상의 아름이 크시었지만 인민을 그토록 사랑하신 어버이장군님의 교시를 가슴에 새겨안으시고 애도기간이라도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그대로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거양되어 한다고 하시며 물고기를 수송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고 일군들이 헌신지에 나가 물고기공급을 직접 책임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대중의 피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던 새해의 첫날 3월 10일경 군내 시를유령경주 105평경 산단을 찾으신어 어버이장군님을 잃고 눈물속에 나날을 보내셨을 동무들이 보고싶어왔다고, 힘을 내라고 하시며 우리 군인들을 피눈물의 언덕에서 일으켜세워주시고, 땀땀 추위로 마다하지 않으시고 장군님께서 그처럼 관심하시던 평양양민숙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어버이장군님의 한평생의 념원을 풀이드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며 군인건설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그 숭고한 총정의 모범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날 천만 군민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으로 이끌어주시고계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생애의 전가 발표하신 수많은 로작들과 강령적인 글들의 갈피갈피를 다시금 하나하나 면벽 보시고 자자구구 새기시면서 전당, 전군, 전민을 장군님의 유훈관철전에 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어버이장군님께서 생전에 내놓으신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온갖 집력을 강로로 쏟아부으셨는데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사색과 심혈을 이 땅에는 얼마나 가슴뜨거운 변혁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있는것인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유산인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 당이 강위력한 혁명의 창조로, 불패의 전위대로 더욱 공고 발전되고 인민군대가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무적불침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되어 선군혁명위업을 계속한 선배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이 땅위에 현실로 꽃피워나 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상한 총정의 열도는 온 나라에 유훈관철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계기로 분수령을 이루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지난 3년간의 사업정형을 총화하고 장군님의 유훈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더욱 굳건히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하는데서 새로운 영원을 열어놓기 위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내세우시고 자신의 숭고한 모범으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로 전당, 전군, 전민을 전두에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장군님의 한평생의 로고가 스며들고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은 끝없이 생명번영할것이며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는 더더욱 앞당겨질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혁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리상이고 평생소원이였다. 현시기 인민생활문제를 선차적인 문제로 내세우시는는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생활을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억척불변의 의지가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현시기 인민생활문제를 풀고 나라의 경제를 튼튼히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시려 정력적인 령도의 길을 이어가신다. 지난해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16차례, 위대한 장군님께서 4차례 다녀가시며 농업생산의 획기적발전과 농장원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농장농장원들에게 정중구 확대회의가 시대와 력사앞에 새겨주는 의미는 비상히 크다.

회의에서 력사적인 결정을 하시면서 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수령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위에 어떻게 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가 세계에로 뚫혀보여 주어야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내세우시고 자신의 숭고한 모범으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로 전당, 전군, 전민을 전두에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장군님의 한평생의 로고가 스며들고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은 끝없이 생명번영할것이며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는 더더욱 앞당겨질것이다.

한평생 인민생활문제를 두고 마음을 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여 장군님의 유훈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내세우시고 자신의 숭고한 모범으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로 전당, 전군, 전민을 전두에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장군님의 한평생의 로고가 스며들고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은 끝없이 생명번영할것이며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는 더더욱 앞당겨질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혁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인민 생활향상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 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로고를 천만민의 책에 적는다 한들 어찌 다 전할수 있겠는가. 어버이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교시도 인민생활과 관련된것이였으며 제일 많이 그러보신것도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인민의 모습이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가운데서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와 관련하여 주신 유훈부터 먼저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계시는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소원을 하루빨리 풀이드리기 위하여 불멸의 대장들을 마련해주시려 여러 대회를 소집해주시였으며 무더위와 강추위속에서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시는데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모두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중에서 인민생활문제부터 먼저 풀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깊이 새겨야 한다. 일군들은 누구나 심장에 손을 얹고 광명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보아야 한다.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소원을 배에 새기고 일하였는가.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애였으며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만 하면 극복 못할 난관도, 절령 못할 요새도 없다.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령도따라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쓰시며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하시려 이 나라의 높은 산, 험한 평을 다 넘으시고 별방의 농장도, 외진 산골마을도 다 찾으신 우리 장군님

본사기자 정 선 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질 좋은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 평양신발공장에서 - 본사기자 림 학 락 찍음

언제나 장군님께서로 마음달리시며

위성제작자들과 드리신 총정의 보고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소식으로 온 나라가 크나큰 환희에 젖어있던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른 새벽 흰눈덮인 마나린 길을 달리시어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으시었다.

이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운반로켓 《은하-3》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유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에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로움과 경묘의 정이 차넘치고있는 시기에 우리의

주시는 한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며 과학자, 기술자들이 평양에 올라와 자신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에는 어버이장군님을 찾아뵙고 인공지구위성 발사장으로 발사한데 대한 총정의 보고를 드리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는데 이르렀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성제작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위성발사의 승리의 보고를 드리는 숭엄한 화폭이 펼쳐지게 되었다.

물고기농년의 기쁨이 커갈수록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레전 12월 어느날 6개월동안에 수천의 물고기를 잡은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이어께서는 물고기잡이창고와 물고기판매장지침마다 배를 찾이셨는데 물고기들을 보시면서 수심만큼 펼쳐진 호호한 물고기농년을 두고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이윽하여 물고기판매장지침을 나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풍에 물고기비린내를 물씬 물씬 풍기며 하얗은 사연을 끝

없고 산처럼 아득히 쌓인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정이 온몸에 사무쳐왔던것이다. 병사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히 먹이기 위해 그처럼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소원을 풀이 드리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총정이 하늘에 닿고 바다에 닿아 수심만큼 푸른 물고기대풍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의 의도를 앞장에서 관철한 사업소들의 종업원들이 인민력량의 부에 높이 모신 대원수님들의 모습을 찾아가 총정의 보고를 올리고 최고사령관과 기념사진을 찍고고 하시며 그들을 평양에 초청해주시는 대대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황금해의 새벽은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의 길에서 시작되었다. 본사기자

우리 나라 식료공업의 《금컵》이 되기까지

금업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온 나라에 소문난 공장으로 전변시킨 리정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사업성과를 두고

금컵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체육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우승컵을 생각한다.

우리 선수들이 조국의 명예를 걸고 싸워 국제경기마다에서 편견없는 승패 때 영웅조신 체육인들의 정신과 본래로 우리 나라 식료공업발전의 전철에 당당히 선 공장이 있다. 그 이름도 의미있는 금업체육인종합식료공장이다.

《금컵》이라는 상표를 단 이 공장 제품들은 최근년간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속에서 그 인기가 부쩍 올라 그 질과 맛에 있어서 우리 나라 식료품을 대표하는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지난 1월 이 공장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는 갖가지 식료품이 쏟아져 나오는 생산현장들을 만족하게 돌아

보시면서 파란한 평가를 거듭 안겨주셨다. 그러시면서 리정호동무를 비롯한 해당 부문과 공장일군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업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당정책관철에 앞장선 공장, 자력갱생하는 공장, 인민들이 좋아하는 공장입니다.》

공장의 의미있는 이름에 새겨진 《금컵》의 영예를 빛내기 위하여 지난 몇해 동안 비약하고 또 비약하면서 확고한 토대와 눈부신 전망을 마련해놓은 금업체육인종합식료공장의 성과에서 우리는 창조와 변혁의 시대인 오늘날 일군들은 어떤 정신력과 기질의 소유자로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승리의 단상에는 누가 먼저 오를수 있는가

금업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한 물질적보장사업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단위이다. 이로부터 이 공장 종업원들은 자신들도 조국의 명예를 걸고 경기장을 달리는 선수들과 같다는 자각, 일단 경기장에 나서면 반드시 승리의 기발을 휘날려야 한다는 체육인의 정신과 기질을 체질화하고있다.

이러한 정신력의 불씨가 되어주고 본보기가 되었던 선구자들이 바로 일군들이다.

공장이 첫걸음을 뒀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5년전이다. 당시에는 당의 평도밀에 경공업발전에서 전환이 일어나면서 선농식료공장을 비롯한 식료공업부문의 본보기단위들이 배출되어 이름을 떨치고있던 때였다. 이러한 때에 공장을 일떠세워야 했던 리정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제일 중시한 문제가 있었다.

이들 머리 앞에서는 본보기단위들의 뒤를 따라갈것이 아니라 그 단위들을 하루배 따라갈수 있는 자기들의 길을 찾는 것이었다. 그러자면 공장의 전망을 설계하는 일군들의 목표가 크고 배짱이 남달라야 할 것이다.

얼마 안되는 인원과 설비가 전부였던 공장의 건설초기에 리정호동무는 종업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당면목표는 1년반만에 우리나라 식료공업부문에서 제일 앞선 단위를 따라잡는것입니다.》

모두가 놀라워했다. 공장을 건설하고 일정한 터를 잡은 후라면 몰라도 아직 건설시작에 불과한데 어찌도 크게 제일 앞자리라니?

누가 뭐래도 리정호동무의 결심은 확고하고 단호했다.

지금 이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토대를 잡는다고 어울려야 하는 사이에 앞선 단위들은 더 높고, 더 멀리 내달릴것이다.

지금에 와서 종업원들은 리정호동무의 그대의 확고한 결심과 배짱이 얼마나 옳은 것이었는가를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평도아래 상상도 못할 비약과 전변이 매일같이 일어나고있는 오늘날의 한해가 다르고 한 달이 다르게 새로운 기준과 본보기들이 무수하게 대어내고있다. 만약 리정호동무가 비롯한 일군들이 공장의 전망과 목표를 그렇게 멀리, 높이 세우지 못했다면 5년안에 우리 나라 식료공업부문에서 《금컵》의 당당한 지위를 차지한 자랑스러운 오늘이 있을수 있었는가.

목표가 높고 결심이 확고하면 사색과 탐구도 더 깊어지고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기 마련이다.

식료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해본 경험도 없지만 리정호동무의 배심을 든든하게 해준것은 식료공업발전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가르침들이었다. 우리 나라 식료공업발전의 지침으로 되었고

는 귀중한 교시들을 자자구구 연구하던 과정에 그는 몇번이나 무릎을 쳤다.

《몇가지 생산자료에만 매달릴것이 아니라 음료, 빵, 당과류와 같이 체육인들의 영양보장에 필요하고 인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킬수 있는 식료품들을 다양화, 집약화의 방법으로 생산하는 길이 비약의 지름길이다.》

특히 《자기 땅에 밭을 틀리고 눈을 세계를 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은 리정호동무를 흥분시켰다. 그는 앞으로 식료품생산을 마음먹은대로 다양화, 집약화해 나갈수 있고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배를 얻을수 있는 능력과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통이 큰 건설전투를 설계하고 내밀었다.

우승을 위한 경기는 기술과 체력에 앞서 선수의 정신력에 의하여 판가리된다. 우승의 단상에는 정신력의 강자가 오르는 법이다.

문명강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도 다름없다. 승리가 되려면 먼저 정신력의 강자가 되어야 한다는것을 리정호동무는 순간도 잊지 않았다.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지만 미리 앞을 내다보며 역적같이 전진하는 리정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앞길을 어떤 시련도 막아설수 없었다.

제일 힘든 과제였던 공장건물건설부터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다.

모두가 경기장에 나선 선수들처럼 힘껏 달렸다.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타오르는 속도에 팔조공사와 내외부미장, 마감공사가 동시에 벌어졌으며 한개 층이 완공되는 것을 동시에 현대적인 식료기공설비들이 속속 들어앉았다.

이렇게 되어 2010년 2월까지만 해도 2층짜리 넓은 청사와 자그마한 작업장밖에 없던 제한된 부지면적에 불과 8개월 동안에 연건평이 수천㎡에 달하는 4층짜리 현대적인 생산건물이 일떠섰고 그로부터 한해도 채 안되어 무려 백수십대의 최신식식료기공설비들을 장비하고 여러종에 200여가지의 다양하고도 질 좋은 식료품들을 평평 생산하는 식료공장이 자태를 드러내는데 성공하였다.

새로운 목표들을 련속 제기하고 대외의 요청에서 해방없이 달려오 또 달리는 리정호동무의 완강한 실천력은 체육음료생산공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식료품생산공장을 갖춘 5층짜리 새 생산건물건설을 단 두달 동안에 완공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뚜렷이 파시되었다.

리정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금컵》의 명예를 온 나라에, 세계에 떨칠수 있는 고귀한 지침으로 심장에 쏙아박고 한 글자도 흠뻑 없이 100% 집행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쳤다. 하여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공장을 일떠세우고 생산을 하우도 중단없이 내미는것과 함께 비품생산기지를 비롯하여 여러 생산 및 봉사기

지들을 단 3년동안에 꾸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일떠세운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종업원들은 자기들이 발휘한 힘에 대하여 놀라게 되어보고 있다. 그것은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사상정신력의 결정체였다.

우리는 생산장성의 예비는 과학기술에 있다고 말한다. 과학기술공부의 고비를 어떻게 더 든든히 틀어쥐는가 하는것도 결국은 자기 공장, 자기 일터를 민방에 빛내이려는 높은 정신력을 발휘를 두고있다는것이 리정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곳 일군들이 처음부터 제일 중시한것, 지금도 변함없이 중시하고있는것은 생산자대중의 기술기술수준을 높이는 사업이다. 하루빨리 세계와 도전할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식료공장을 일떠세우자면 현대적인 설비도 중요하지만 보다 선진적인것은 생산의 주인, 최첨단도파전의 주인이 되어야 할 종업원들의 창조적능력과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문제라는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군들은 공장을 일떠세우는것과 함께 기술자, 기능공대렬을 확대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일군들과 공장의 기대를 가슴에 뜨겁게 간직하고 종업원들은 시간을 아껴가며 배우고 또 배웠다. 로동자들이 열정 높은데 대하여 격정하시였다. 그러자 리정호동무는 즉시 이렇게 대답을 드렸다.

《경애하는 원수님, 당에서 바라는 일이란 하느니라도 공장을 짓겠습니다!》

이런 정신력의 강자들이 기수가 된 단위, 당의 사상과 의도도 자라나게 심장의 피를 뿜는 미더운 일군들이 앞세울 때 단위는 자기 분야에서 우승의 단상에 제일 먼저 오르기가 마련이다.

애국가를 부를수 있는 자격

우리 체육인들이 국제경기에서 우승하고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릴 때마다 목에 부르고 하는 애국가.

리정호동무는 작업현장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어려운 전투를 벌일 때에도 이 노래를 부르고 계획완수의 기쁨 넘치는 축하무대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고 한다. 애국가는 리정호동무의 인생의 주제가라고도 말할수 있다.

사람들은 금업체육인종합식료공장이 일떠선지 불과 몇달도 안되는 기간에 우리 나라 식료공업부문의 일대에서 달려오 인민들의 신용을 얻은 명실공히 평평 생산해내는 높은 창조력을 두고 기적이라고 말한다. 이 기적의 또 하나의 비결을 우리는 리정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사랑하며 즐겨 부르는 애국가에서 찾아보게 된다.

현재 금업체육인종합식료공장의 제품은 무려 수백가지에 이른다. 다종다양한 그 제품들에 《금컵》이라는 하나의 상표가 붙듯이 제품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도 오직 하나-인민의 평가이다.

실사 아무리 번쩍거리고 멋진 제품이라 해도 인민들이 찾지 않는 제품, 인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제품은 만들 필요가 없으며 하나라도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실속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이 이들이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제품의 질에 대한 기준이며 원칙이다.

오늘도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모두가 잊지 못하는 《50kg의 빵》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공장이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던 그때 이들은 한편으로는 건물건설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빵생산설비를 먼저 갖추어놓고 50kg의 빵을 생산한적이 있었다. 말하자면 시제품인셈이었다. 첫 생산물이여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애착과 기대는 컸다.

하지만 식료메달에 나간 그 빵들은 수요자가 없었다. 설비도 펜잡고 생산자들도 지난 시기 그 분야에서 일정한 경험도

강성국가건설목표가 반드시 현실로 될것이라는 확신이 더 강해진다 하고 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짧은 기간에 높은 실력을 소유하게 된 기술자, 기능공들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어렵다면 최신생산설비조립도 자체의 힘으로 해결되고 새 제품개발도 줄기차게 벌어졌다.

조업당시에 비해 2014년말현재 생산량은 4배로 장성되고 체육음료와 탄산음료, 떡과 빵, 당과류와 고기 가공품과 같은 다양한 식료품들을 하루에만도 수십t 생산하는 작아도 고무알같은 공장, 내왕하는 공장으로서 《금컵》이라는 그 이름이 인민들속에서 널리 알려지게 된것은 바로 리정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지닌 이런 남다른 정신력이 낳은 알찬 열매인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리정호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의 비상한 정신력과 기질을 보여 주는 한가지 이야기를 덧붙이려고 한다.

뜻깊은 현지지도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체육인들을 위한 경쟁성공을 새로 꾸밀때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확대되는 생산공정에 비하면 공장의 부지가 좁은데 대하여 걱정하시였다. 그러자 리정호동무는 즉시 이렇게 대답을 드렸다.

《경애하는 원수님, 당에서 바라는 일이란 하느니라도 공장을 짓겠습니다!》

이런 정신력의 강자들이 기수가 된 단위, 당의 사상과 의도도 자라나게 심장의 피를 뿜는 미더운 일군들이 앞세울 때 단위는 자기 분야에서 우승의 단상에 제일 먼저 오르기가 마련이다.

가지고있다는 사람들이어서 첫 제품이 받은 때는 참으로 뜻밖이었다.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았다. 제품의 소비자, 평가자였던 인민들의 요구를 외면했기 때문이었다. 인민들은 보다 질이 높은 빵을 요구하고있었다.

실제로 찾은 교훈은 심각했다. 시대는 발전하고 인민들의 요구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했던것이다. 인민들이 찾지 않는 빵을 50kg이 아니라 50t을 생산하고 계획을 몇백% 넘쳐 수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리정호동무는 공장명칭에 빛나는 《금컵》이라는 두글자의 의미를 세심스럽게 되새겨보았다.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이 제일먼저, 제일 많이 요구하는 식료품들을 만들어내야 명실공히 《금컵》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는것이였다.

그때부터 리정호동무는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철저히 그것을 리용하게 될 인민들의 요구를 기준으로 하여 생산을 진행하도록 하는 엄격한 체계를 확립하였다.

실제로 현재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9종에 370여가지나 되는 제품들 가운데서 2011년 10월 조업당시에 생산하던 제품들은 거의나 없는데 그것은 언제나 새로운것을 지향하고 요구하는 소비자들 즉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생산실현에 구현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식료공업은 제품의 맛과 질에서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부문이라고 말할수 있다. 리운만을 바라면서 원단위소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소비자들을 속이는것과 같은 비량적인 경영활동을 한다면 그만큼 신용을 잃게 되며 그것은 곧 경영활동의 파멸을 의미한다. 자본주의나라 기업가들은 기업의 안전을 위해 신용제일주의를 제창하지만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 사회주의제도에에서는 인민대중을 위해 신용제일주의를 해야 한다는것, 신용은 곧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것이 이곳 일군들이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경영전략의 근본원칙이다.

《금컵》의 생명력은 바로 인민의 요구를 중시하고 그에 충실히 복무하려는 투철한 인민관에 뿌리를 두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장에서는 최근에만도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속에서 호평이 대단한 새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였는데 그중의 하나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민족음식인 떡과 뇌졸병에 좋은 성분들을 가지고있는 고무마를 결합시켜 만든 고무마떡이다. 이밖에도 건강강진에 효과적인 강녕이단떡, 해바라기 씨파자를 비롯한 새 제품들이 편이 편이 개발되어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이채롭게 하여주고있다.

연제인가 한 상점의 식료메달을 찾았던 리정호동무는 우리의것이 아닌 식료품을 찾는 소비자들을 보게 되었다. 알고보니 그들은 요구하는 제품은 우리 나라 식료공장에서 생산하지 못하고있는 식료품이었다. 왜서인지 리정호동무는 그날 밤 잠을 이룰수 없었다. 자존심이 허락치 않았다.

공장의 새 제품개발의 1번수이도 한 리정호동무는 그때부터 며칠을 고심하며 그 제품을 공장에서 만들기 위한 진지한 사색과 탐구를 기울였다. 계획한 세운것이 아니라 지체없이 그 실행을 위한 설비들을 마련하였고 새 제품개발과 관련한 연구사업도 병행하여 내밀었다. 그러나 새 제품개발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일부 종업원들속에서 아무데도 이 제품을 개발하는 시간이 좀 걸려야 할것 같으니 현행생산이 바른 조건에서 잠시 뒤로 미루었으면 하는 의향이 제기되었다. 그때 리정호동무는 공장일군들과 기술자들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물론 설비조립도 연구사업도 힘든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제품을 하루빨리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만큼 남의 것이 계속 들어들어오게 됩니다.

체육인들에게 우리의것이 아닌 식료품을 안겨주면서 어떻게 국제경기에서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떨치라고 부탁할수 있겠습니까.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에게 안겨줄 제일 좋은 식료품은 반드시 우리 《금컵》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애국의 마음이 어찌 기적을 안아오지 않겠나. 새 제품개발전투에서는 애국가와 함께 혁명가요 《적기가》가 높이 울려지었다.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빛내여야 하는가를 모두의 심장속에 뜨겁게 새겨주신 노래들을 부르며 한영희, 진옥순, 신현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어떤게만 생각되던 고급식료품을 자체의 힘과 지혜로 만들어 내놓았다. 지금 그 제품은 남의것을 존중도 없이 밀어내고 우리 인민들의 생활속에 친숙하게 자리잡고있다.

리정호동무는 아무리 바빠도 자주 시간의 식료상점들과 매대들에 나가보곤 한다. 사람들이 저마다 요구하는 《금컵》제품들 가운데 인민들의 수요가 특별히 많은 제품을 보면 폐회없이 민족적자존심을 걸고 지혜와 열정을 장그려 쏟아 쏟아 내놓았을 때였다. 그때마다 이들을 통해 수없는 긍지와 회열과 함께 새로운 열정이 솟구치곤 하였다.

참된 애국에는 만족이란 없다. 《금컵》이 높은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하고 식료공업의 첨단에 용감하게 도전하고있는것은 리정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리정호동무가 유머에서 유머하다고 하는 빵제품을 평가하는 새로운 고급식료품을 생산하려는 제안을 내놓았을 때였다. 일부 사람들이 지극히 평면에서는 너무 좋지만 시시상상과 같은 일이라고, 우리 인민들에게는 아직 그런 식료품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도리머리를 저었다.

리정호동무는 패배주의에 폭 졌은 그런 목소리들을 단호히 짓눌러버리며 선언하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것을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다. 그 뜻을 현실로 꽃피우자면 세계적으로 으뜸가는것들을 하루빨리 우리의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리정호동무의 이 말은 우리 일군들에게 참으로 심각한 교훈을 새겨주었다. 오늘날 우리 당의 구상은 내 나라를 세상에서 으뜸가는 인민의 탁월으로 만들자는것이며 우리 인민들이 온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보란듯이 잘하는 문명국을 일떠세우자는것이다. 당의 이 숭고한 애국애민의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지 못하고 눈앞의 생산수자나 조건만 따지면 저거기걸음을 한다면 언제 가도 내 나라, 내 조국을 세계의 앞장에 내세울수 없다.

리정호동무는 그런 마음속으로 끝내 고급식료품을 또 한가지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연제인가 리정호동무가 사업상용무로 외국출장을 다녀왔을 때의 일이다. 그에게서 뜻밖에도 자그마한 식료품이 나왔다. 동행하였던 일군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비행기식사에 포함되어있었던것이였기 때문이다.

같이 출장길에 올랐던 성원들은 그저 맛있게 먹었다는 사실이나 하고 생각할 때 리정호동무는 처음 보는 자그마한 식료품을 놓고도 어떻게 하면 《금컵》제품을 개선하는데 창조적으로 받아들일것인가 하는데로 사색을 이어갔던것이다. 지나가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것을 세계제일의것으로 만들수 없을까,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안겨줄수 없을까 하는 한가지 생각뿐인 일군들에게는 늘 기발한 착상과 대단한 발상이 나오기 마련이며 그런 일군들이 이끄는 단위는 남보다 몇갑절 더 빠른 속도로 내달는 법이다.

지금 금업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의 범위를 벗어나 창조적 열기를 끊임없이 펼치고있다. 《금컵》의 주인들이 심장으로 부르는 애국가 세계의 하늘가에 메아리칠 날은 멀지 않았다. 이번 애국가들에게 내 나라의 애국가를 부를수 있는 자격이 있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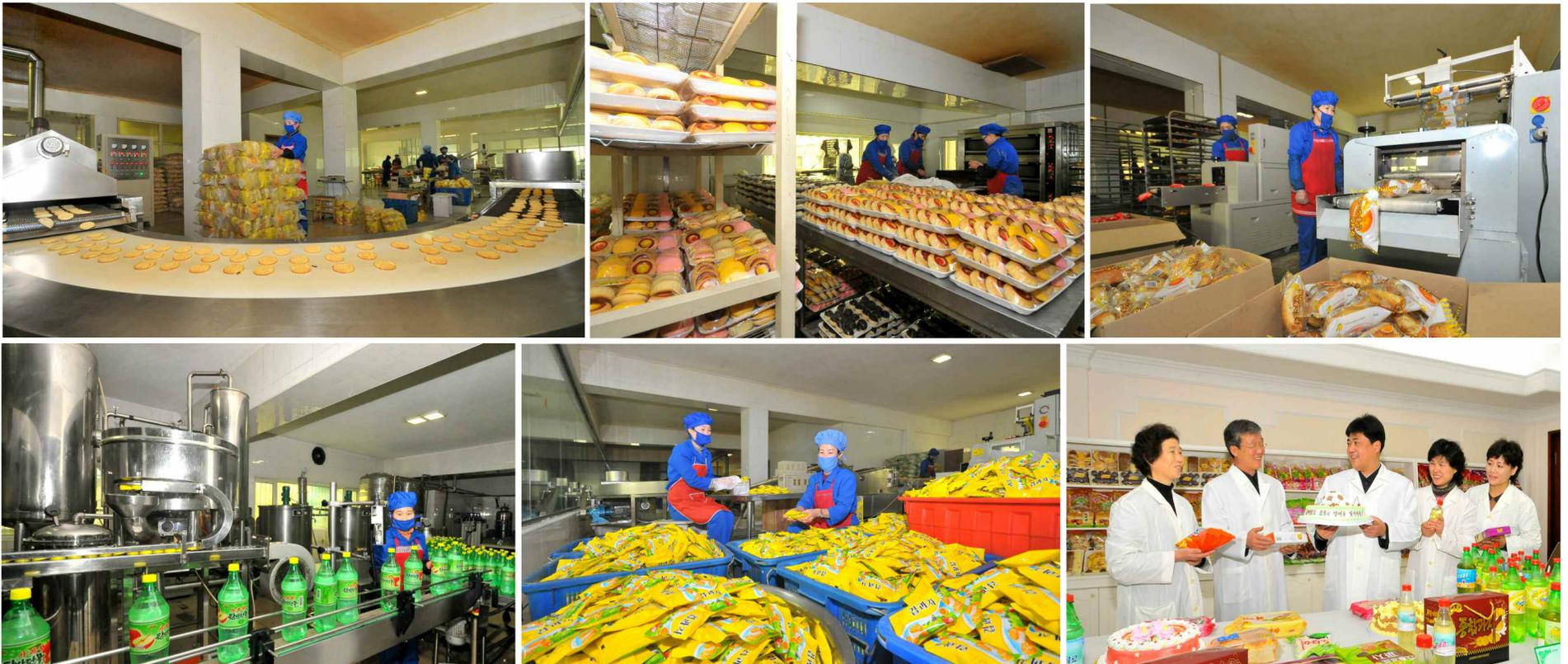
※

지난 1월 공장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는 원수님께서는 제품전열대에 놓여있는 체육음료들을 보여주시며 이 음료를 2013년 동아시아경기대회준경기대회와 지난해에 진행된 제 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체육선수들에게 공급하였는데 그것을 리용한 체육선수들의 반응이 좋다고, 우리 체육선수들이 국제경기에서 나가 금메달을 쟁취하는데 이 공장이도 한몫을 이룩하고 공헌을 안겨주었다. 참으로 많은 뜻을 담아 안겨주신 평가였다.

공화국기를 휘날리기 위한 총포성열은 대결은 결코 체육전쟁에서만 벌어지는것이 아니다. 우리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한사코 가로막아나서는 원수들과의 치열한 대결속에서 진행되고있는 경제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분야는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총포성열은 전진과 진퇴이다.

모든 일군들이 애국가를 심장으로 부르며 결사적으로 싸워 이겨 거머잡는 우승의 단상에 올라선 체육인들처럼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세계가 보란듯이 공화국기를 휘날리겠다는 배설불굴의 정신력과 불같은 자존심을 지니고 살며 투쟁할 때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승리는 하루빨리 앞당겨질 것이다. 이것이 리정호동무를 비롯한 《금컵》의 주인들을 만나보고 우리가 찾게 되는 귀중한 진리이다.

본사기자 강진형
본사기자 오철룡



체육인들과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갖가지 식료품들이 줄지어 쏟아진다.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도 악용하는 미국과 피뢰패당의 죄악은 추후도 용납될수 없다

지난 5일 서울에서 있는 미국대사정변사건을 기화로 미국과 피뢰패당이 그것을 정치적목적실현에 악용하며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상징과 주구가 입을 모아 미국남조선동맹을 운운하며 정치군사적결판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로골화하고있다.

피뢰패당자가 《배후세력》책을 펴들며 우리를 터무니없이 결코고있으며 여당과 군부, 경찰과 사법계가 《중복》몰이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어중이며중이 극우보수편지지자들이 서울 한복판에 쏟아져 나와 《중복세력규판국민대회》니 뭐니 하는 집회를 벌려놓고 극도의 반공화국대결판관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하고 훼손하는 극악무도한 망동을 부리고있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에게 대한 참살수 없는 중대도발이며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행위이다.

하는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은 무차별적인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진짜 《대통령명칭》은 청와대가 아니라 미국대사가 거쳐하는 《정동판자》이며 남조선은 미국의 《속국》, 《식민지1번지》, 《51번째 주》라고 개탄하고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것이다.

미국남조선동맹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서 세계적패아망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이 남조선당국을 끌어들이어 조작한 전쟁동맹이다.

오바마정권이 들어선 후 동맹강화의 미명하에 조선반도에서 침략전쟁연습소동이 하루도 그칠 사이없이 벌어지고 전쟁장비가 대대적으로 투입되고있다.

미핵항공포함 《조지 워싱턴호》, 미핵잠수함 《사이언스호》, 《B-52》전략폭격기와 《A-22》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한 최신미국형정기비행기와 타격수단들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쏟아져 들어와 돌아침으로써 이 지역은 그야말로 미국의 핵무기전시장, 핵시험전쟁마당으로 되어버렸다.

동맹강화의 일환으로 극히 위험천만한 핵전쟁각본인 《맞춤형핵전쟁계획》이 채택되었다. 얼마전에는 조선에서 새 전쟁도발을 주도하기 위한 전쟁참모부, 전쟁부대이며 우리의 신성한 정치체제를 어찌보려는 정치군사적대포기구인 미국남조선연합사단참모부가 생겨나 가동하고있다.

미행정부는 최근에 발표한 미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군사적협이 최전해지고 재정원천이 고갈된데로부러 국제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일방주의적개입을 《자제》하고 다자주의적개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일명 《오바마외교》를 발표하였다.

《집단지행동의 우위성》과 다자주의적《협조》를 제창한 미국이 그것을 남조선과의 동맹강화로 실현하려 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특대형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그 규모부터 최대의 리익을 얻어내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수법이다.

지금 미국은 미국대사정변사건을 두고 패자를 울리고있다.

남조선피뢰패당을 침략적인 군사동맹에 더 깊이 얽어매고 저들의 정경대사들을 제압하기 위한 돌격대로 내세우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살공세를 확대하기 위한 천제일우의 기로로 삼고있다.

현실적으로 미행정부는 남조선각계 민심의 커다란 분노와 저주를 자아내고 이번 정변사건의 핵심요소로 된 《키 리콜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더욱 확대강화하고있다.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악랄하게 감행되는 최대규모의 전쟁연습에 선제타격수단들을 갖춘 미군함선들을 편이여 들이밀고있다.

맹천종식후 해양패권을 장악한 미군이 전면전포대 국지전을, 유혈포대. 아시아를 더 충실하는 국방전략에 따라 개발한 연인전투형핵심인 《오트프리스호》가 증속기와 수직리착륙무인정찰기, 포와 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처음으로 기어올랐다.

규모와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그 침략성과 공격적성이 더욱 날마다 드러나고있는 군사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최악한 전쟁국면으로 치닫해가고 있다.

한편 미련방수사국은 사건발생직후 피뢰패당성이 합동수사를 거부하였으나 뼈저리게 감찰청문부에 틀고앉아 사건수사정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장악중해고있다.

미국에 여러용당당이 속하지까지 흉악범죄기구는줄도 모르고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떠들며 상진의 비위를 발라맞추는 피뢰패당의 추태가 참으로 가련하다.

박근혜피뢰패당이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부르는데는 오바마가 《형제》라고 부를 정도의 핵심속근인물인 현지 《총독에게 아부차며하여 환심을 사고 날로 높아가는 반미자주, 반《정부》기운을 거세말살하려는 반악한 기도다 갈라졌다.

박근혜는 사건당일 증동행자중 정변사건을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단언하였으며 미국대사에게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국정부와 긴밀히 협조해나갈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위로》하였다. 남조선으로 돌아와 피뢰패당을 기로로 남조선에 찾아가 《자기도

칼침을 맞은적이 있다.》느니, 《신호를 같은 상처를 입고 같은 범헌에 입헌되었다.》느니 하면서 《한미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어리석게 늘어놓았다.

12일에는 47차 조찬기도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받는 한미동맹이 전대미문의 공격을 받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꿇었으며 피뢰패당과 합동인원식에서는 《한미동맹이 앞으로 더 변할것이 한반도안정에 기여할것이고 더 나아가 세계평화의 중요한 축이 될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피뢰패당부 장관 한민구는 6일 미국방장관에게 보낸 《위로》편지에서 《한미동맹이 앞으로 더 포괄적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할것이라고 확신합니다.》고 하였으며 성남공공기지도 미국사실에서 감행된 《키 리콜브》연습장을 찾아서는 《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주춧돌로서 지난 60여년동안 적도발을 억제하고 안보를 지켜왔다.》고 뇌까렸다.

피뢰패당부 장관 리완구는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관계가 이번 일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망발하였다.

《새누리당》 대표 김경수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굳건한 반석위에 올려놓겠다고 떠벌이였다.

이것이야말로 가련한 친미주구들의 내적인 사대미국적행위이며 동족대결에 피는이 원자국의 히스테리적당풍이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역대 피뢰패당들의 정치리념이며 본태이다.

박근혜피뢰패당 역시 김진후 《포괄적동맹관계》가 뒤니 하면서 그 누구보다 대미결탁을 강화하였다.

실심이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확고하여야 남북관계도 잘 풀이갈수 있다.》고 하면서 남북관계를 미국의 대조선전략정책에 철저히 복속시켰다.

전시각정국체전환을 무기한 연기하고 남조선경제 미군유지비를 더 많이 부담하며 값비싼 미국무기들을 마구 구입하고 미국독점자본에 시장을 전방방하는 면으로 남조선을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의 식민지구렁렁이에 더욱 깊숙이 굴러떨어지게 하였다.

그러한 정치시정배들이기에 한강 대사에 불과한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뉘굴하게 놀아내신는것이다.

사람이 사대에 빠져 주권을 잃으면 머지라 되고 민족이 사대에 몰렸으면 나라가 망한다.

외세가 살판치는 세상밖으로 빠져서나와 애비로망사 사대미국적기질을 물려받은 박근혜가 《대통령》자리를 타고앉았으니 피뢰패당과 《국회》, 청와대와 군부는 물론 극우보수세력모두가 사대와 순비로 몰렸어 천하를 웃기는 비화맹단을 낳았다.

박근혜의 너털웃음의 남편인 신동욱이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 《리퍼트와 그의 가족, 미국정부와 국민에게 용서를 빈다.》고 하면서 병원앞에 투르고 앉아 민사함의 조소를 받으며 《석고대리판사》들을 벌러놓았는가 하면 보수편지지들이 거리합판에 떨쳐나와 미국기발을 흔들며 온갖 추태를 부렸다.

이를 두고 남조선각계에서 《도대체 사울이 미국명인지 《한국》명인지 분간할수 없다.》, 《사울은 성조기가 걸렸중해하였다.》는 분노의 서곡이 터져나오고있다.

《국회》와 여야당의 정치인들은 자처하는자들이 줄지어 미국대사를 면회한다며 병원으로 향했고 어중이며중이들이 대사의 《치료비》를 모아들었다. 《혜유를 기원》하는 집회를 벌린다면 병원의 해외마중한 지랄을 다 부리고있다.

그러나 피뢰패당은 때를 만난듯이 미국대사정변사건을 구실로 미국상선에 대해 더욱 역겹게 아부차며하는 한편 평판적인 《중복》소동과 살벌한 공안선공물을 일으키면서 각계층의 반미, 반전쟁화운동에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체제대결기도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며 극우보수성력들을 내몰아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판중자주 부리게 하면서 사태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고있다.

피뢰패당이 친미반민족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으며 정벌의 불벼락을 쏟아 부을 우리 군대의 무죄포신과 로트레발사들이 발사전의 만단의 격동상태에 있다.

남조선각계층은 《타국대사를 웃사람으로 부르는 명예백인들》, 《사죄행렬은 풀볼것》, 《지구사본을 역사에 증거부를 찍자.》고 하면서 울분을 터뜨리고있다.

남조선은 물론 다른 나라의 인터넷들에도 《도대체 미국대사가 무엇이라고 전부 나라와 주권을 떠는가.》, 《우리 국민이 소중한가, 미국인이 소중한가.》, 《자국민은 개로 취급되는 더러운 세상을 떠나겠다.》 등 박근혜당을 조소하고 규탄하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 상징과 주구들이 불치를 앉고있다.

민족의 머리에 해 전쟁의 참화를 들쳐우고 남조선을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국을 해비로 삼기는 피뢰패당과 같은 쓸개배진 친미사대매국노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었는가.

현실은 외세와의 결탁강화로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할수 없으며 오히려 동족대결과 전쟁위험을 증대시키게 될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 식민지지배가 지속되는 한 피뢰패들은 식민지주구의 가련한 처지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시중을 전상제 한다.

세계각국의 언론들은 김기총이 단행한 이번 정변을 미국과 피뢰패당의 전쟁연습이 빚어낸 결과라고 평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뢰패당이 이번 사건을 《중복세력의 소행》으로 몰아대며 우리를 결코드는데는 저들이 당한 국제적당신과 수치를 모면하는 한편 이 기회에 통일운동세력을 대거이 말살하려는 비렬한 기도다 갈라졌다.

7일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보안법》적용 결내고 쫓겨 맞추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씨가 난데없이 《중복》으로 락인책인데는 어떤 실제적근거도 없다. 그의 부방문은 《장부》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고 여러 사람과 함께 정해진 일정에 이루어진 일이다. 북방문만으로 《중복》의 락인을 받아야 한다면 그동안 금강산 등을 방문한 200만명의 우리 국민이 대상이 된다. 지금도 개성에 있는 기업체들은 이에 말할것도 없다.》라고 폭로한것은 이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남조선에서 평판적으로 벌어지는 《중복》몰이는 역대 피뢰패당의 반공화국도발책동의 연장이다.

《복소행렬》과 《중복》소동은 모략과 남조로 동족대결을 추구하는자들의 현성적인 악습으로서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반공화국도발책동을 뒤받침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둔것이다.

공포정치, 정보정치로 악명을 떨친 박정희독재자는 집권당기에도 《조선》, 《정경》을 연장하기 위해 통일혁명당정변사건, 남조선학생 등을 조작하여 애국적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을 대중적으로 겁탈, 무욕, 처형하였다.

박정희의 집권 18년은 파초폭압으로 통일운동은 가로막고 수많은 《간첩사건》조작한 극우보수단체 장대들은 미국의 신성한 최고존엄과 공화국을 감히 모독하고 훼손하는 극악무도한행위까지 서슴치 않았다.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에 대한 공판놀음과 우리의 핵보유를 찬양한 남조선주변에 대한 구속, 《자주일보》 3개월간의 발행정지를 처분하는 등 파초폭압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조선반도정세를 교조시키는 미국의 침략책동에 대한 민족적울분을 참을수 없이 정의의 세례를 안긴 주민에게 《살인미수》, 《테로》의 감투를 씌우다 못해 사태의 책임은 그 누구에게 전가해버리고 《중복세력의 소행》으로 《배후세력》에 의한 조작으로 떠드는것은 도저히 용납 못할 사대미국적, 반통일적대결당풍이다.

남조선각계에서 지난 박근혜계파당의 집권 2년과 《세월》호참사 1년을 예기로 반 《중복》투쟁기운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수십년전 리승만, 박정희독재자를 거꾸러뜨린 항쟁의 거리들이 터져나왔던 투쟁구호들이 도처에서 울려퍼지고있다.

반미, 반정부부시위로 국도의 위기에 처한 피뢰패당이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중복》몰이, 《배후세력척결》소동에서 찾고 그처럼 땅기를 부르고있는것이다.

9일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일보》는 《한시 사회에서 공안사건이 자주 《중복》공세로서의 면모를 띠게 되는것은 그것을 북과 관계하게 되면 그로부터 적지 않은 정치적이익이 발생하기때문이다. 그 정치적이익은 다양할것으로 분석된다.》고 평하였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국대사정변사건을 계기로 반공화국도발책동의 도수를 한층 높이고있는 미국과 박근혜패당의 범죄적당풍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으며 그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필적의 의지로 피를 끓이고있다.

이 피 생명의 귀중한 우리의 최고존엄과 신성한 정치체제를 건드리는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고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쓸어버릴 단호한 의지를 선언하였다.

우리는 온 민족과 함께 미국과 반통일대결분쟁들의 망동을 대대적으로 용서치 않았으며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다.

주제104(2015)년 3월 17일 평양

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박근혜는 2002년 평양을 방문하여 제10회 6.15공동선언을 지지한다고 하였고 화해와 협력을 운운하며 마치도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듯이 수순을 펼치며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간청까지 한바 있다.

그러한 그가 독기를 내뿜으며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남조선의 민주개혁세력들을 《중복》으로 몰아대며 이 기회에 말살하려는 비렬한 기도다 갈라졌다.

피뢰패당의 광란적인 《중복》몰이와 《배후》같은 현 집권자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치적거부감과 체제대결야망의 집적발로이다.

박근혜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평프로세스》는 외세와 결탁하여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북침과 체제대결당풍을 실현하려는 반통일정책이며 전쟁정책이다.

이로부터 박근혜는 미국이 사회주의나라들을 붕괴시키고 몰아간 《헬싱기프로세스》에서 제미를 보고 그것을 조선반도에 적용하기 위해 쫓겨온 《한반도신평프로세스》를 자기의 정적적기적으로 삼았으며 거기에서 기본방점은 《신 변화》로, 종착점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흡수통일》로 내세웠던것이다.

현 집권자로서 그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휘두르고있는것이 《중복》몰이와 《배후세력》의 흡수통일이다.

지난 시기 북남관계를 결판내고 체제대결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박근혜당이 미국대사정변사건을 저들의 불순한 목적에 써먹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새누리당》배격리들은 《북인전법》이니, 《테로방정법》이니, 《싸드》에지니 하는것들을 피뢰패당에서 처리하려 하고있다.

매번 친밀맞을것을 해온 《어이비련합》의 늑대리 산중장들과 《고엽제전우회》를 비롯한 극우보수단체 장대들은 미국의 신성한 최고존엄과 공화국을 감히 모독하고 훼손하는 극악무도한행위까지 서슴치 않았다.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에 대한 공판놀음과 우리의 핵보유를 찬양한 남조선주변에 대한 구속, 《자주일보》 3개월간의 발행정지를 처분하는 등 파초폭압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조선반도정세를 교조시키는 미국의 침략책동에 대한 민족적울분을 참을수 없이 정의의 세례를 안긴 주민에게 《살인미수》, 《테로》의 감투를 씌우다 못해 사태의 책임은 그 누구에게 전가해버리고 《중복세력의 소행》으로 《배후세력》에 의한 조작으로 떠드는것은 도저히 용납 못할 사대미국적, 반통일적대결당풍이다.

남조선각계에서 지난 박근혜계파당의 집권 2년과 《세월》호참사 1년을 예기로 반 《중복》투쟁기운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수십년전 리승만, 박정희독재자를 거꾸러뜨린 항쟁의 거리들이 터져나왔던 투쟁구호들이 도처에서 울려퍼지고있다.

반미, 반정부부시위로 국도의 위기에 처한 피뢰패당이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중복》몰이, 《배후세력척결》소동에서 찾고 그처럼 땅기를 부르고있는것이다.

9일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일보》는 《한시 사회에서 공안사건이 자주 《중복》공세로서의 면모를 띠게 되는것은 그것을 북과 관계하게 되면 그로부터 적지 않은 정치적이익이 발생하기때문이다. 그 정치적이익은 다양할것으로 분석된다.》고 평하였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국대사정변사건을 계기로 반공화국도발책동의 도수를 한층 높이고있는 미국과 박근혜패당의 범죄적당풍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으며 그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필적의 의지로 피를 끓이고있다.

이 피 생명의 귀중한 우리의 최고존엄과 신성한 정치체제를 건드리는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고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쓸어버릴 단호한 의지를 선언하였다.

우리는 온 민족과 함께 미국과 반통일대결분쟁들의 망동을 대대적으로 용서치 않았으며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다.

주제104(2015)년 3월 17일 평양

미국대사정변사건후 미국이 남조선과의 동맹강화를 부추기며 떠벌어내고있다.

사건발생일인 5일 미국무성은 성명에서 《이한동맹은 굳건》하며 남조선주제 미국사 리퍼트에게 《테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무성 부대변인 하프는 정경기자회견에서 《이한동맹은 변함없고 앞으로도 공고할것》이라며 그 《불변성》에 대해 떠벌어냈다. 계속해서 박근혜와 고위관리들이 리퍼트에게 진료를 하거나 직접 평壤만을 간것은 동맹의 강도와 깊이를 잘 보여주는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조선주제 이전 외교 및 관공계자들도 리퍼트사건이 오히려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것이라고 력설하였다.

미국대사는 캄보디아를 방문에 대해 《자기에 대한 공격이자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된다.》고 하면서 명분안은 피뢰패당자들에게 《이한동맹이 아주 공고하고 앞으로 더욱 강건해질것》이라느니, 《이번 위에도 굴하지 않는 동맹을 만들어나갈것》이라느니 뭐니하고 떠벌어냈다.

이것은 미국남조선동맹강화로 남조선주제 미국대사에게 식민지총독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보다 높여주고 남조선은 영구강점하여 미국의 세계제국화실현의 전조기지로 만들려는 음흉한 속심이 비친 로골적인 움직임을이다.

미국이 행방무후하지 지금까지 남조선에서 모든것을 짜두우면서 주인의노릇을 해왔다는 것은 세상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남조선주제 미국대사관, 남조선감정 및 사법, 미중앙정보국 남조선지부 등은 백악관의 지령을 청와대에 내려먹고 그 집행을 감독, 통제하는 현직지배기구들이다.

미국의 의사에 따라 《정경》이 만들어지고 미국에 의해 길들여진 친미주구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미국에 멸사봉공하고 있는것이 남조선의 현실이다.

피뢰패당은 초보적인 자주전제국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정경》, 미국의 곡독자 《정경》이며 미국과 남조선피뢰패당사이의 관계는 철두철미 상전과 주구의 관계, 지배와 예속의 관계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때에는 친미보수 《정경》연장을 위해 남조선의 현지지배기구들은 물론 미국무성의 전, 현직관리들과 전략국체문제연구소, 브루스연구소, 미국인론단체까지 동원하여 《중복》소동, 《복복》소동, 야권세력분열 등의 각종 모략사건들을 조작하여 현 피뢰패정권을 만들어냈다.

결과 피뢰패당자들이 저들에게 집권의 기회를 준 미국을 해비로 삼으면서 《정경》이후의 명멸을 꾸리고있는 미국에 절대부종하는것을 의무처럼 여겼으며 미국은 피뢰패당정권을 노복처럼 해대하였다.

《보안법》, 미국남조선《행정법》을 비롯하여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뒤받침하는 각종 파초악법들과 굴욕적인 협정들에 의해 미국의 괴이한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반면에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는 무참히 유린당하고있으며 사회의 민주화와 반미자주화, 조국통일을 지향

한 정경이 합동수사를 거부하였으나 뼈저리게 감찰청문부에 틀고앉아 사건수사정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장악중해고있다.

미국에 여러용당당이 속하지까지 흉악범죄기구는줄도 모르고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떠들며 상진의 비위를 발라맞추는 피뢰패당의 추태가 참으로 가련하다.

박근혜피뢰패당이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부르는데는 오바마가 《형제》라고 부를 정도의 핵심속근인물인 현지 《총독에게 아부차며하여 환심을 사고 날로 높아가는 반미자주, 반《정부》기운을 거세말살하려는 반악한 기도다 갈라졌다.

박근혜는 사건당일 증동행자중 정변사건을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단언하였으며 미국대사에게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국정부와 긴밀히 협조해나갈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위로》하였다. 남조선으로 돌아와 피뢰패당을 기로로 남조선에 찾아가 《자기도

칼침을 맞은적이 있다.》느니, 《신호를 같은 상처를 입고 같은 범헌에 입헌되었다.》느니 하면서 《한미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어리석게 늘어놓았다.

12일에는 47차 조찬기도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받는 한미동맹이 전대미문의 공격을 받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꿇었으며 피뢰패당과 합동인원식에서는 《한미동맹이 앞으로 더 변할것이 한반도안정에 기여할것이고 더 나아가 세계평화의 중요한 축이 될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피뢰패당부 장관 한민구는 6일 미국방장관에게 보낸 《위로》편지에서 《한미동맹이 앞으로 더 포괄적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할것이라고 확신합니다.》고 하였으며 성남공공기지도 미국사실에서 감행된 《키 리콜브》연습장을 찾아서는 《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주춧돌로서 지난 60여년동안 적도발을 억제하고 안보를 지켜왔다.》고 뇌까렸다.

피뢰패당부 장관 리완구는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관계가 이번 일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망발하였다.

《새누리당》 대표 김경수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굳건한 반석위에 올려놓겠다고 떠벌이였다.

이것이야말로 가련한 친미주구들의 내적인 사대미국적행위이며 동족대결에 피는이 원자국의 히스테리적당풍이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역대 피뢰패당들의 정치리념이며 본태이다.

박근혜피뢰패당 역시 김진후 《포괄적동맹관계》가 뒤니 하면서 그 누구보다 대미결탁을 강화하였다.

실심이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확고하여야 남북관계도 잘 풀이갈수 있다.》고 하면서 남북관계를 미국의 대조선전략정책에 철저히 복속시켰다.

전시각정국체전환을 무기한 연기하고 남조선경제 미군유지비를 더 많이 부담하며 값비싼 미국무기들을 마구 구입하고 미국독점자본에 시장을 전방방하는 면으로 남조선을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의 식민지구렁렁이에 더욱 깊숙이 굴러떨어지게 하였다.

그러한 정치시정배들이기에 한강 대사에 불과한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뉘굴하게 놀아내신는것이다.

사람이 사대에 빠져 주권을 잃으면 머지라 되고 민족이 사대에 몰렸으면 나라가 망한다.

외세가 살판치는 세상밖으로 빠져서나와 애비로망사 사대미국적기질을 물려받은 박근혜가 《대통령》자리를 타고앉았으니 피뢰패당과 《국회》, 청와대와 군부는 물론 극우보수세력모두가 사대와 순비로 몰렸어 천하를 웃기는 비화맹단을 낳았다.

박근혜의 너털웃음의 남편인 신동욱이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 《리퍼트와 그의 가족, 미국정부와 국민에게 용서를 빈다.》고 하면서 병원앞에 투르고 앉아 민사함의 조소를 받으며 《석고대리판사》들을 벌러놓았는가 하면 보수편지지들이 거리합판에 떨쳐나와 미국기발을 흔들며 온갖 추태를 부렸다.

이를 두고 남조선각계에서 《도대체 사울이 미국명인지 《한국》명인지 분간할수 없다.》, 《사울은 성조기가 걸렸중해하였다.》는 분노의 서곡이 터져나오고있다.

《국회》와 여야당의 정치인들은 자처하는자들이 줄지어 미국대사를 면회한다며 병원으로 향했고 어중이며중이들이 대사의 《치료비》를 모아들었다. 《혜유를 기원》하는 집회를 벌린다면 병원의 해외마중한 지랄을 다 부리고있다.

그러나 피뢰패당은 때를 만난듯이 미국대사정변사건을 구실로 미국상선에 대해 더욱 역겹게 아부차며하는 한편 평판적인 《중복》소동과 살벌한 공안선공물을 일으키면서 각계층의 반미, 반전쟁화운동에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체제대결기도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며 극우보수성력들을 내몰아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판중자주 부리게 하면서 사태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고있다.

피뢰패당이 친미반민족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으며 정벌의 불벼락을 쏟아 부을 우리 군대의 무죄포신과 로트레발사들이 발사전의 만단의 격동상태에 있다.

남조선각계층은 《타국대사를 웃사람으로 부르는 명예백인들》, 《사죄행렬은 풀볼것》, 《지구사본을 역사에 증거부를 찍자.》고 하면서 울분을 터뜨리고있다.

남조선은 물론 다른 나라의 인터넷들에도 《도대체 미국대사가 무엇이라고 전부 나라와 주권을 떠는가.》, 《우리 국민이 소중한가, 미국인이 소중한가.》, 《자국민은 개로 취급되는 더러운 세상을 떠나겠다.》 등 박근혜당을 조소하고 규탄하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 상징과 주구들이 불치를 앉고있다.

민족의 머리에 해 전쟁의 참화를 들쳐우고 남조선을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국을 해비로 삼기는 피뢰패당과 같은 쓸개배진 친미사대매국노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었는가.

현실은 외세와의 결탁강화로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할수 없으며 오히려 동족대결과 전쟁위험을 증대시키게 될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 식민지지배가 지속되는 한 피뢰패들은 식민지주구의 가련한 처지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시중을 전상제 한다.

세계각국의 언론들은 김기총이 단행한 이번 정변을 미국과 피뢰패당의 전쟁연습이 빚어낸 결과라고 평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뢰패당이 이번 사건을 《중복세력의 소행》으로 몰아대며 우리를 결코드는데는 저들이 당한 국제적당신과 수치를 모면하는 한편 이 기회에 통일운동세력을 대거이 말살하려는 비렬한 기도다 갈라졌다.

7일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보안법》적용 결내고 쫓겨 맞추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씨가 난데없이 《중복》으로 락인책인데는 어떤 실제적근거도 없다. 그의 부방문은 《장부》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고 여러 사람과 함께 정해진 일정에 이루어진 일이다. 북방문만으로 《중복》의 락인을 받아야 한다면 그동안 금강산 등을 방문한 200만명의 우리 국민이 대상이 된다. 지금도 개성에 있는 기업체들은 이에 말할것도 없다.》라고 폭로한것은 이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남조선에서 평판적으로 벌어지는 《중복》몰이는 역대 피뢰패당의 반공화국도발책동의 연장이다.

《복소행렬》과 《중복》소동은 모략과 남조로 동족대결을 추구하는자들의 현성적인 악습으로서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반공화국도발책동을 뒤받침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둔것이다.

공포정치, 정보정치로 악명을 떨친 박정희독재자는 집권당기에도 《조선》, 《정경》을 연장하기 위해 통일혁명당정변사건, 남조선학생 등을 조작하여 애국적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을 대중적으로 겁탈, 무욕, 처형하였다.

박정희의 집권 18년은 파초폭압으로 통일운동은 가로막고 수많은 《간첩사건》조작한 극우보수단체 장대들은 미국의 신성한 최고존엄과 공화국을 감히 모독하고 훼손하는 극악무도한행위까지 서슴치 않았다.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에 대한 공판놀음과 우리의 핵보유를 찬양한 남조선주변에 대한 구속, 《자주일보》 3개월간의 발행정지를 처분하는 등 파초폭압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조선반도정세를 교조시키는 미국의 침략책동에 대한 민족적울분을 참을수 없이 정의의 세례를 안긴 주민에게 《살인미수》, 《테로》의 감투를 씌우다 못해 사태의 책임은 그 누구에게 전가해버리고 《중복세력의 소행》으로 《배후세력》에 의한 조작으로 떠드는것은 도저히 용납 못할 사대미국적, 반통일적대결당풍이다.

남조선각계에서 지난 박근혜계파당의 집권 2년과 《세월》호참사 1년을 예기로 반 《중복》투쟁기운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수십년전 리승만, 박정희독재자를 거꾸러뜨린 항쟁의 거리들이 터져나왔던 투쟁구호들이 도처에서 울려퍼지고있다.

반미, 반정부부시위로 국도의 위기에 처한 피뢰패당이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중복》몰이, 《배후세력척결》소동에서 찾고 그처럼 땅기를 부르고있는것이다.

9일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일보》는 《한시 사회에서 공안사건이 자주 《중복》공세로서의 면모를 띠게 되는것은 그것을 북과 관계하게 되면 그로부터 적지 않은 정치적이익이 발생하기때문이다. 그 정치적이익은 다양할것으로 분석된다.》고 평하였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국대사정변사건을 계기로 반공화국도발책동의 도수를 한층 높이고있는 미국과 박근혜패당의 범죄적당풍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으며 그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필적의 의지로 피를 끓이고있다.

이 피 생명의 귀중한 우리의 최고존엄과 신성한 정치체제를 건드리는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고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쓸어버릴 단호한 의지를 선언하였다.

우리는 온 민족과 함께 미국과 반통일대결분쟁들의 망동을 대대적으로 용서치 않았으며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다.

주제104(2015)년 3월 17일 평양

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박근혜는 2002년 평양을 방문하여 제10회 6.15공동선언을 지지한다고 하였고 화해와 협력을 운운하며 마치도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듯이 수순을 펼치며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간청까지 한바 있다.

그러한 그가 독기를 내뿜으며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남조선의 민주개혁세력들을 《중복》으로 몰아대며 이 기회에 말살하려는 비렬한 기도다 갈라졌다.

피뢰패당의 광란적인 《중복》몰이와 《배후》같은 현 집권자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치적거부감과 체제대결야망의 집적발로이다.

박근혜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평프로세스》는 외세와 결탁하여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북침과 체제대결당풍을 실현하려는 반통일정책이며 전쟁정책이다.

이로부터 박근혜는 미국이 사회주의나라들을 붕괴시키고 몰아간 《헬싱기프로세스》에서 제미를 보고 그것을 조선반도에 적용하기 위해 쫓겨온 《한반도신평프로세스》를 자기의 정적적기적으로 삼았으며 거기에서 기본방점은 《신 변화》로, 종착점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흡수통일》로 내세웠던것이다.

현 집권자로서 그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휘두르고있는것이 《중복》몰이와 《배후세력》의 흡수통일이다.

지난 시기 북남관계를 결판내고 체제대결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박근혜당이 미국대사정변사건을 저들의 불순한 목적에 써먹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새누리당》배격리들은 《북인전법》이니, 《테로방정법》이니, 《싸드》에지니 하는것들을 피뢰패당에서 처리하려 하고있다.

매번 친밀맞을것을 해온 《어이비련합》의 늑대리 산중장들과 《고엽제전우회》를 비롯한 극우보수단체 장대들은 미국의 신성한 최고존엄과 공화국을 감히 모독하고 훼손하는 극악무도한행위까지 서슴치 않았다.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에 대한 공판놀음과 우리의 핵보유를 찬양한 남조선주변에 대한 구속, 《자주일보》 3개월간의 발행정지를 처분하는 등 파초폭압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조선반도정세를 교조시키는 미국의 침략책동에 대한 민족적울분을 참을수 없이 정의의 세례를 안긴 주민에게 《살인미수》, 《테로》의 감투를 씌우다 못해 사태의 책임은 그 누구에게 전가해버리고 《중복세력의 소행》으로 《배후세력》에 의한 조작으로 떠드는것은 도저히 용납 못할 사대미국적, 반통일적대결당풍이다.

남조선각계에서 지난 박근혜계파당의 집권 2년과 《세월》호참사 1년을 예기로 반 《중복》투쟁기운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수십년전 리승만, 박정희독재자를 거꾸러뜨린 항쟁의 거리들이 터져나왔던 투쟁구호들이 도처에서 울려퍼지고있다.

반미, 반정부부시위로 국도의 위기에 처한 피뢰패당이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중복》몰이, 《배후세력척결》소동에서 찾고 그처럼 땅기를 부르고있는것이다.

9일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일보》는 《한시 사회에서 공안사건이 자주 《중복》공세로서의 면모를 띠게 되는것은 그것을 북과 관계하게 되면 그로부터 적지 않은 정치적이익이 발생하기때문이다. 그 정치적이익은 다양할것으로 분석된다.》고 평하였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국대사정변사건을 계기로 반공화국도발책동의 도수를 한층 높이고있는 미국과 박근혜패당의 범죄적당풍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으며 그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필적의 의지로 피를 끓이고있다.

이 피 생명의 귀중한 우리의 최고존엄과 신성한 정치체제를 건드리는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고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쓸어버릴 단호한 의지를 선언하였다.

우리는 온 민족과 함께 미국과 반통일대결분쟁들의 망동을 대대적으로 용서치 않았으며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다.

주제104(2015)년 3월 17일 평양

미국대사정변사건후 미국이 남조선과의 동맹강화를 부추기며 떠벌어내고있다.

사건발생일인 5일 미국무성은 성명에서 《이한동맹은 굳건》하며 남조선주제 미국사 리퍼트에게 《테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무성 부대변인 하프는 정경기자회견에서 《이한동맹은 변함없고 앞으로도 공고할것》이라며 그 《불변성》에 대해 떠벌어냈다. 계속해서 박근혜와 고위관리들이 리퍼트에게 진료를 하거나 직접 평壤만을 간것은 동맹의 강도와 깊이를 잘 보여주는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조선주제 이전 외교 및 관공계자들도 리퍼트사건이 오히려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것이라고 력설하였다.

미국대사는 캄보디아를 방문에 대해 《자기에 대한 공격이자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된다.》고 하면서 명분안은 피뢰패당자들에게 《이한동맹이 아주 공고하고 앞으로 더욱 강건해질것》이라느니, 《이번 위에도 굴하지 않는 동맹을 만들어나갈것》이라느니 뭐니하고 떠벌어냈다.

이것은 미국남조선동맹강화로 남조선주제 미국대사에게 식민지총독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보다 높여주고 남조선은 영구강점하여 미국의 세계제국화실현의 전조기지로 만들려는 음흉한 속심이 비친 로골적인 움직임을이다.

미국이 행방무후하지 지금까지 남조선에서 모든것을 짜두우면서 주인의노릇을 해왔다는 것은 세상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남조선주제 미국대사관, 남조선감정 및 사법, 미중앙정보국 남조선지부 등은 백악관의 지령을 청와대에 내려먹고 그 집행을 감독, 통제하는 현직지배기구들이다.

미국의 의사에 따라 《정경》이 만들어지고 미국에 의해 길들여진 친미주구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미국에 멸사봉공하고 있는것이 남조선의 현실이다.

피뢰패당은 초보적인 자주전제국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정경》, 미국의 곡독자 《정경》이며 미국과 남조선피뢰패당사이의 관계는 철두철미 상전과 주구의 관계, 지배와 예속의 관계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때에는 친미보수 《정경》연장을 위해 남조선의 현지지배기구들은 물론 미국무성의 전, 현직관리들과 전략국체문제연구소, 브루스연구소, 미국인론단체까지 동원하여 《중복》소동, 《복복》소동, 야권세력분열 등의 각종 모략사건들을 조작하여 현 피뢰패정권을 만들어냈다.

결과 피뢰패당자들이 저들에게 집권의 기회를 준 미국을 해비로 삼으면서 《정경》이후의 명멸을 꾸리고있는 미국에 절대부종하는것을 의무처럼 여겼으며 미국은 피뢰패당정권을 노복처럼 해대하였다.

《보안법》, 미국남조선《행정법》을 비롯하여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뒤받침하는 각종 파초악법들과 굴욕적인 협정들에 의해 미국의 괴이한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반면에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는 무참히 유린당하고있으며 사회의 민주화와 반미자주화, 조국통일을 지향

한 정경이 합동수사를 거부하였으나 뼈저리게 감찰청문부에 틀고앉아 사건수사정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장악중해고있다.

미국에 여러용당당이 속하지까지 흉악범죄기구는줄도 모르고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떠들며 상진의 비위를 발라맞추는 피뢰패당의 추태가 참으로 가련하다.

박근혜피뢰패당이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부르는데는 오바마가 《형제》라고 부를 정도의 핵심속근인물인 현지 《총독에게 아부차며하여 환심을 사고 날로 높아가는 반미자주, 반《정부》기운을 거세말살하려는 반악한 기도다 갈라졌다.

박근혜는 사건당일 증동행자중 정변사건을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단언하였으며 미국대사에게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국정부와 긴밀히 협조해나갈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위로》하였다. 남조선으로 돌아와 피뢰패당을 기로로 남조선에 찾아가 《자기도

칼침을 맞은적이 있다.》느니, 《신호를 같은 상처를 입고 같은 범헌에 입헌되었다.》느니 하면서 《한미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어리석게 늘어놓았다.

12일에는 47차 조찬기도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받는 한미동맹이 전대미문의 공격을 받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꿇었으며 피뢰패당과 합동인원식에서는 《한미동맹이 앞으로 더 변할것이 한반도안정에 기여할것이고 더 나아가 세계평화의 중요한 축이 될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피뢰패당부 장관 한민구는 6일 미국방장관에게 보낸 《위로》편지에서 《한미동맹이 앞으로 더 포괄적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할